

## 동음이의 음역어의 난맥상 분석

### \_\_가라를 중심으로\_\_

김미숙\*

- I 음역어 사용의 문제. II 가라의 음역 용례의 분석.  
III 음역어 가라의 난맥상. IV 결론.  
<불임> 의미 체계 분류.

요약문 [주요어: 가라, 음역(音譯), 동음이의(同音異義), 한역(漢譯), 축역, 범어, 번역]

한역(漢譯) 불전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독음이 동일하여 중첩적인 동음이의 음역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예컨대 ‘나라, 다라, 마라, 바가, 바라, 바사, 반나, 발리, 발타, 발타라, 사라, 사리, 사타, 사파, 수라, 시라, 시파, 타라, 파나, 파라, 파리’ 등은 매우 다양하고 중첩적인 음역 용례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음역 예 중에서 ‘가라’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동음이의 음역어가 야기하는 의미 체계에서의 난맥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이중번역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동음이의어의 경우에는 음역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누역(累譯)의 경우에는 다양한 판본들을 비교 분석한 뒤에 용어를 최대한 통일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동음이의 음역어의 경우에 중첩적인 의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전 또는 한역본에는 없는 단어일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를 한정시키고 보충하는 말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축역으로 인한 동음이의어의 경우에는 원음을 복원시켜서 번역함으로써 의미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점은 원전을 반영함으로써 한역 불전의 용어를 간명하게 하고 동시에 의미의 명료성을 높이는 데에도 적잖은 역할을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2-A00044).

\* 金美淑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연구초빙교수.

## I. 음역어 사용의 문제

음역어(音譯語)란 단어가 가진 원래의 발음을 그대로 따서 만든 말을 가리키며, 언어학적으로 분류하자면 외래어의 범주에 속한다. 문화적 토양이 다른 외국의 문헌을 현지의 언어로 번역하여 통용시키고자 할 때 불가피하게 외래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사물의 시간적 발전과 더불어 생겨나고 정착되는 말의 특성으로 볼 때, 단기간 내에 많은 정보량을 해소해야 하는 번역 문화의 영역에서 음역어를 채용하는 것은 다분히 용이한 언어 창출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역 불교 문헌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상하는 정도를 훨씬 넘는 양의 외래어, 즉 음역어가 나온다. 그런 까닭에 1차로 한역된 경전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고자 할 때, 누구나 직면하는 문제는 음역어의 번역 방식이라 할 것이다. 음역의 형태가 전역(全譯)이든 축역이든지간에, 본래의 원음을 살려서 번역해야 할지, 아니면 한역된 음만 그대로 우리말로 독음(讀音)하여 번역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래 음을 채용하고자 하여도 원전이 상실된 경우에 얼마나 정확하게 원음을 복원하여 표기할 것인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동일한 내용의 문헌을 번역하고 있는 여러 판본들을 비교해 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그 중에서 한 부분만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열거 순서는 번역된 연도에 따랐다.

① “一時. 佛遊阿羅鞞伽羅. 在憇林中.”<sup>1)</sup>

1) T. 1, p. 482c. 고려대장경에서도 이와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글대장경 목록』에서는 고려대장경에서의 위치를 “K648(17-1114·1117)”이라고 잘못 표기하고 있다(동국역경원(2001) p.

- ② “一時, 佛遊阿邏鞞伽邏, 在憇林中.”<sup>2)</sup>
- ③ “한때 부처는 아라비가라의 한 수림속에 자리잡고 있었다.”<sup>3)</sup>
- ④ “어느 때 부처님께서 아알라비갈라에 노닐으시면서 악가알라바 숲속에 계셨다.”<sup>4)</sup>
- 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아알라비갈라[阿邏鞞伽邏]에 노닐으시면서, 악가알라바[憇林]<sup>5)</sup> 속에 계시었다.”<sup>6)</sup>
- ⑥ “어느 때 부처님께서 아라비가라阿邏鞞伽邏를 유행하실 때에 화림憇林中에 계셨다.”<sup>7)</sup>
- ⑦ “어느 때 부처님께서 아라비가라(阿邏鞞伽邏)를 유행하실 적에 화림(憇林)에 계셨다.”<sup>8)</sup>

257.) 실제로는 “K648(17-1104·1107)”이 바른 위치이다.

동국대학교(1963) p. 1104a, 1107a.

- 2) 佛光山宗務委員會(1984) p. 343. 점호(點號)를 다르게 표시했을 뿐 1)의 예와 동일하다. 이 경우는 “아라비가라(阿邏鞞伽邏)”를 한 장소로 보기 쉬울 것이다. 다른 현대 중국어 역본은 다음과 같다. “一時, 佛遊阿邏鞞伽邏, 在憇林中.” 中國佛教文化研究所(1999) p. 171. 여기서는 유(遊) 자가 달리 쓰인 듯 하지만 동일한 의미이다. 하지만 아라비와 가라 사이에 점호를 넣지 않았다는 점은 다를 바 없다.
- 3) 김주철 편(1992) p. 107.
- 4) 이연숙 편역(1992) p. 215. 여기서 화림에 해당하는 부분을 “악가알라바 숲”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찾기 힘들다. 더구나 ‘화(憇)’는 ‘시습화(尸攝憇)’를 축약시킨 단어로 보아야 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어는 팔리어 “상사파(simsapa)”일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인용문 ④와 ⑤의 예에서 ‘화림’을 “악가알라바 숲” 또는 “악가알라바[憇林]”라고 번역하고 있는 점은 주해 또는 교정이 뒤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5) 팔리 문헌을 분석하여 초기 불전에 나오는 지명의 빈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알라비(Ālavī)는 11번째로 자주 나오는 지명이며, 총 60회로서 1.28%를 차지한다(Sarao, p. 180.) 그런데 알라비의 실제 위치에 대해서도 학설이 나뉜다. 즉 “Unao에 있는 Newal(또는 Nawal)이라는 설”과 “Etawah에서 북동쪽으로 27마일 거리에 위치한 Aviwa라는 설” 등이 있다(Sarkar, p. 156.) 간혹 “Etwah”라는 기록도 있으나(Law, p. 24.), 이는 힌디어 또는 현지음의 영어 표기 방식에 따른 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6) 동국역경원 편(1993) p. 210.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은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한자는 “阿邏鞞伽邏”가 아니라 “阿邏鞞伽邏”라고 하여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 7) 김월운 역(2006) p. 352.

여기에 해당하는 팔리 본과 그 번역 예는 다음과 같다.

① “X X III. 1. Ekam samayaṃ Bhagavā Ālavīyaṃ viharati Aggāve cetiye.”<sup>9)</sup>

② “ある時, 世尊は阿羅鞞阿伽羅婆制底に住したまへり.”<sup>10)</sup>

③ “Einst weilte der Erhabene bei Ālavi am Hauptschrein der Ālavī.”<sup>11)</sup>

④ “한때 세존께서는 알라위에서 악갈라와 탐묘에 머무셨다.”<sup>12)</sup>

- 8)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보는 “한글대장경 검색 시스템”은 동국역경원에서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하여 역경을 한 한글대장경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예단하기 십상이다. 실제로 이와 동일한 내용이 한글대장경 검색 시스템의 첫 화면에 담겨 있다.([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main.html](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main.html) 2010년 4월 29일 검색.) 하지만 위의 예문으로 판단하건대, 실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정의 유무를 떠나서, 어떤 경우일지라도 인터넷상의 저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정확히 공시되어야 하며, 별도의 작성 또는 번역이 있었다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정확히 공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40) 수장자경(手長者經) 제9 [초 1일송]”(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kyoung/index\\_kyoung.asp](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kyoung/index_kyoung.asp) 2010년 4월 22일 검색.) 덧붙여서 특기할 사항으로는, 원전의 “화림(憇林)”이 “지림(智林)”으로 쓰여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화(憇) 자와 지(智) 자는 별개의 한자이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 하나는 해당 사이트의 용어 검색 칸에 ‘아라비가라’만을 써 넣고 검색하면 『중야함경』의 수장자경(手長者經)에 해당하는 문구가 뜨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한자가 “화(憇)” 자로 바르게 표시된다는 점이다.
- 9) Hardy ed.(1958) Vol. IV, p. 216.
- 10) 高楠博士功績記念會 纂譯(1939) p. 90. 여기서는 cetiya를 ‘제지(制底)’라고 음역하되 축역을 한 점이 특이하고, 아라비(阿羅鞞)와 아가라비(阿伽羅婆) 제지가 이어서 쓰여 있으나, “아라비의 아가라바 제지”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그 근거로는 같은 책, 색인 편에서 “阿伽羅婆 Aggāva (制底) 90, 93”이라고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高楠博士功績記念會 纂譯(1939) “漢字索隱”, p. 1a.
- 11) “23 *Hatthaka aus Alavi* 1(Acht Eigenschaften)”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다.(Nyanatiloka trans., p. 121.) 또한 각주를 통해서 “*Aggāve cetiye*.”를 지칭한다고 밝히고 있다. Nyanatiloka trans., p. 185.
- 12) 역자는 여기서 탐묘에 각주를 붙이고서, “악갈라와 탐묘(Aggālava cetiya)에 대한 설명은 주석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첨언하고 있다.

⑤ “한 때 세존께서 알라비 국에 있는 악갈라바 성소에 계셨다.”<sup>13)</sup>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번역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 열거한 구문들을 비교해 보면, “알라비”와 “악갈라바”라는 두 종류의 원어가 한역과 우리말로 다시 번역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일한 장소로 쉽게 오해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료하게 드러난다.<sup>14)</sup> 물론 『번범어』(翻梵語)에서도 “阿羅鞞伽羅(應云阿羅波伽羅 譯曰阿羅婆者不得伽羅者屋也)”라고 하여 하나의 단일한 “국토명(國土名)”으로 분류하여 해설하고 있기도 하다.<sup>15)</sup>

이처럼 특정한 장소의 이름을 명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마치 또 다른 장소를 나타내는 것처럼 표현될 수도 있고, 또한 동일한 원

대림스님 역(2007) p. 149.

- 13) 전제성 역주(2008) p. 134. 여기서 역주자는 “악갈라바”에 각주를 붙이고, “Aggālava : Srp. I. 268에 따르면 알라비(Ālavī) 왕국에는 불교 이전 시대에 야차나 용 등을 숭배하는 많은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들이 있는 곳을 악갈라바(Aggālava) 또는 고타마까(Gotamaka) 등”으로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부처님 이후에 사람들은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곳에 정사를 세웠으나 예전의 이름을 그대로 붙였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Srp.는 *Sarathappakasini(Saṃyutta-Atthakatha)*이다. ‘성소’라고 번역된 ‘cetiya’는 동일한 역주자가 편찬한 사전에서 “사당, 묘당, 무덤, 유골탑, 탑묘” 등의 단어와 “지제수(支提樹)[나무의 이름]”라는 뜻이 열거되고 있다(전제성 편저(2005) p. 364b). 또한 동일한 사전에 ‘Aggālava’라는 표제어에서는 “m. n. [sk. agnyālaya] 알라비(Ālavī)에 있는 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Gotamaka’ 항에서도 “m. [gotama-ka] 고타마까. 구담(瞿曇)[祠堂의 이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전제성 편저(2005) p. 70 a, p. 352a). 그리고 Srp. I. 268라는 문헌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Paṭhame : Aggālave-cetiye ti, Ālavīyaṃ agga-cetiye. Annuppanne Buddhhe Aggālava-Gotamakādīni yakkha-nagādīnaṃ bhavanāni cetiyāni ahesum. Uppanne Buddhhe tāni apanetvā manussā vihāre karīṃsu. Tesāṃ taṇ’ eva nāmaṇi jātaṇi.” Woodward(1977) p. 268.

14)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논의는 “Ālavaka의 전거와 변용”에 대한 분석에 잘 나타나 있다. 정승석(2010) p. 120 이하 참조.

15) T. 54, p. 1034c.

전을 번역하는데도 번역자에 따라서 어떤 용어에 첨가하는 설명어가 각기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전의 번역 용어를 선택할 때 뒤따르는 문제들 중에서도 동음이의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가 한층 더 복잡해진다. 그 점에 착안하여 여기서는 다양한 동음이의의 음역 사례가 불가피한 용례들 중에서 ‘가라’의 경우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뒤, 실제로 발생하는 역경상의 문제점들까지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가라의 음역 용례의 분석

먼저, 우리말 ‘가라’에 해당하는 음역어들을 추출한 뒤, 각각의 경문에 해당하는 원어를 역추적하고 그 용례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특히 원어의 추정은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의 기준을 따랐다.

중국에 전래된 불전들 중에는 그 원어가 방언이거나 방언 형태의 범어인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불전 언어의 특성상 그 원어를 범어로 환원하거나 비정(比定)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원어가 방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러한 특성을 전제로 하여 음역어의 원어를 범어로 환원 또는 비정한다.<sup>16)</sup>

각 항목 내용의 배열 순서는 다음과 같다.<sup>17)</sup>

16) 정승석(2009) p. 307.

17) 이하 용례 분석에서 채택한 서술 방식과 ‘의미 체계 분류’는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범어 음역 한자어의 의미 체계 심화 연구”라는 주제의 프로젝트(KRF-2008-322-A00044)에서 고안한 작성 수칙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가라(우리말 독음의 표제항 및 일련 번호) \ 음역 한자어 [%]<sup>18)</sup> \ (多種 분류의 일련 번호){의미 체계 분류}<sup>19)</sup> \ 음역 형태<sup>20)</sup> \ s\_범어 \ p\_필리 어 \ 용례 서술. \ CETC의 해당 예문과 출처(T. ; X., Vol. No., page, 段(a, b, c)).

그 외 보충 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 단어의 용례에 따른 분류는 논문 말미에 첨부한 “<붙임> 의미 체계 분류”의 표에 따른다.

\* 본 연구의 특성상, 축역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3종으로 보다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 축역1 : 원어에서 축역2와 3을 제외하고 일부분이 축역된 경우이다.  
 축역2 : 접사가 생략된 경우. 예를 들어서 기본 접두사 또는 이차 접미사 중 대부분은 -ya, -ka 등이 생략되거나, 간혹 희소하게 -tä, -tv a, -tara, -tama, -tas, -śas, -vat, -vin 등이 생략된 경우이다.  
 축역3 : 복합어로 이루어져 있을 때 한 단어 또는 그 이상이 생략된 경우이다. 특히 축역3의 경우에는 원어 추정도의 난이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체 사례 중에서 해당 개수를 !%를 붙여서 별도의 통계를 표시하였다. 만약 그 사례가 1건에 불과할 경우에도 !%1/1이라고 표시하였다.

18) 둘 이상의 용례가 있을 경우, 용례의 빈도수를 %로 여기에 제시하고, 용례는 일련 번호를 부여하여 다음 행부터 열거한다. !%는 축역3의 예를 나타낸다.  
 19) 분류는 해당 음역어가 나오는 문맥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동일한 인물일지라도 ‘존자’라는 호칭과 함께 나오면 존자로서 분류하였고, ‘비구’라는 호칭이 함께 나오면 비구로 분류하였다. 왜냐하면 동일한 인물일지라도 해당 문헌의 편찬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편찬 배경에 따라서 그 인물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20) 전역(全譯) 또는 축역(縮譯)1, 2, 3. 상기한 프로젝트의 분류에서는 음역과 의역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역”(合譯)의 예도 따로 분석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조사한 “가라”의 경우에는 합역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열거하지 않았다.

\* 열거되는 가라의 항목에 붙인 일련 번호는 한자의 자전의 배열, 즉 부수 순서에 따라서 임의로 정하였다.

예문으로서 추출된 경문은 전적으로 CETC에 의거하였다. 다수의 경문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때, T. 또는 X.의 열거 번호 중에서 가능한 한 앞선 번호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이 연구의 취지에 따라 상세한 설명은 배제하였고 용례에 따른 의미 구분만 드러낼 정도로 간명하게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가라<sup>01</sup> \ 伽囉 \ {ie0} \ 축역1 \ s\_sāgara \ p\_sāgara \ 바다. \ 但明字義若辨句者伽囉云海羅演云宮室(X. 23, p. 629a).<sup>21)</sup>

가라<sup>02</sup> \ 伽囉<sup>22)</sup> %3/11{ia0}, 2/11{db1}, 1/11{a00};{da1};{dc0};{jb0};{kb0};{lb0}.

<sup>01</sup>{a00} \ 축역1 \ s\_pudgala \ p\_puggala \ 사람의 몸이나 자아. \ 故云沈細綱紐. 綱紐是業因. 伽囉是果報. 業因亡則孰為引果(T. 39, p. 960c).

<sup>02</sup>{da1} \ 전역 \ s\_kāla \ p\_kāla<sup>23)</sup> \ 천신의 이름. \ 神足伽囉天王. 中主上得自在軍將天女(T. 21, p. 236c).

21) 여기에 해당하는 전역의 예는 다음과 같다. “從本國立名也.

有人言伽囉海名也. 和修吉此云多頭.”(T. 34, p. 465a.) 이후로 나오는 모든 축역의 경우에도 다양한 전역의 용례들이 있을 수 있으나 더 이상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22) 『불설장아함경』 「사문과경」에는 “王又命伽囉守門將而告之曰.

今夜清明.”이라는 부분이 나온다(T. 1, p. 107b.) 여기서 “가라(伽囉)”는 문지기의 이름으로서 거의 틀림없이 음역어일 것이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팔리 본 경전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팔리 본에는 “그러자 어떤 대신이 마가다의 왕 아자파삿뚜 웨데히뿃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하여 이름이 빠져 있다(각목 스님 역, p. 190.) 또한 여러 가지 문헌을 탐색해 보아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원어를 밝히기가 매우 난해한 사례로 꼽힌다.

23) kāla의 경우에 kāla로 표기되는 예도 있으나 대체로 kāla에 포섭하거나, 동일시하여 표기되는 경우가 훨씬 보편적이다. 여기서도 그에 따라 kāla로 단일화하였다.



- <sup>03</sup>{db1} \ 전역 \ s\_kāla \ p\_kāla \ 귀신의 이름. \ 意寂然定. 伽羅鬼謂彼鬼言. 我今堪任以拳打此沙門頭(T. 2, p. 793a).
- <sup>04</sup>{db1} \ 전역 \ s\_khara \ p\_khara \ 야차의 이름. \ 如伽羅夜叉以拳打舍利弗頭(T. 25, p. 513a).
- <sup>05</sup>{dc0} \ 축역1 \ s\_sāgara \ p\_sāgara \ 용왕의 이름. \ 運心供養伽羅龍王居在海中(T. 21, p. 569a).
- <sup>06</sup>{ia0} \ 축역1 \ s\_kajaṅgala \ p\_kajaṅgala \ 나라의 이름. \ 伽羅(譯曰伽羅者屋亦云頸也)(T. 54, p. 986c).
- <sup>07</sup>{ia0} \ 전역 \ s\_grha \ p\_gaha \ 집, 마을, 성(城). \ 天竺稱羅闍祇伽羅. 羅闍祇此云王舍. 伽羅此云城(T. 34, p. 5a).
- <sup>08</sup>{ia0} \ 축역1 \ s\_nagara \ p\_nagara \ 성(城). \ 具足外國語應云羅悅祇摩訶伽羅. 羅悅祇此翻為王舍摩訶言大. 伽羅城(T. 34, p. 456a).
- <sup>09</sup>{jb0} \ 축역1 \ s\_tagara \ p\_tagara \ 향나무의 일종. \ 取伽羅樹枝. 若無此木. 取石榴枝(T. 18, p. 877a).
- <sup>10</sup>{kb0} \ 전역 \ s\_kāla \ p\_kāla \ 시간의 분류 중 하나. \ 假名時有三. 一伽羅時. 二三摩時, 三世流布時. 伽羅時者. 此云別相時(T. 85, p. 22b).
- <sup>11</sup>{lb0} \ 축역1 \ s\_hālāhala \ p\_hālāhala \ 독약의 이름. \ 鬱闍尼國生伽羅毒藥. 是名生毒藥(T. 22, p. 255b).
- 가라<sup>03</sup> \ 伽邏 \ {ic0} \ 축역1 \ s\_ \ p\_aggālava \ 탑원(塔院)의 이름. ālavī에 있던 사원(寺院)의 이름. \ 一時佛遊阿邏鞞伽邏. 在枳林中(T. 1, p. 482c).<sup>24)</sup>
- 가라<sup>04</sup> \ 佉羅 \ {id0} \ 축역1 \ s\_khadiraka \ p\_khadiraka \ 산의 이름. \ 去尼彌陀山. 復有山名佉羅山(T. 2, p. 736a).
- 가라<sup>05</sup> \ 加羅 \ {ea3} \ 전역 \ s\_kāla \ p\_kāla \ 비구의 이름. \

24) T.에서는 aggalava라고 각주를 붙여 놓았다(T. 1, p. 482c). 赤沼智善(1967, p. 7b)은 aggalava의 철자를 “aggalava”라고 하며, 이에 상응하는 범어로서 “agrātava”를 병기하고 있다. 전제성은 여기에 해당하는 범어가 “agnyalayā”라고 한다. 전제성 편저(2005) p. 70a. 그러나 어떤 경우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단 괄리 어만 채용하였다.

加羅比丘聽明利根. 未出家時常為人斷疑(T. 85, p. 619c).

가라<sup>06</sup> \ 可羅 \ {ia0} \ 축역1 \ s\_tukhāra \ p\_tukhāra \ 나라의 이름. \ 毘沙門王子杜那里娑婆(梁言有吉)一億夜叉圍遶住可羅國(T. 19, p. 451b).

가라<sup>07</sup> \ 哥羅 %1/6{db1};{dc0};{ea1};{ea3};{ea5};{kc0}.

<sup>01</sup>{db1} \ 전역 \ s\_kāla \ p\_kāla \ 야차의 이름. \ 薄俱羅藥叉 住在王城內哥羅小哥羅 住劫比羅城此藥叉守護(T. 19, p. 464b).

<sup>02</sup>{dc0} \ 축역2 \ s\_kālaka \ p\_kālaka \ 용왕의 이름. \ 針毛臆行諸龍王頡利沙婆及哥羅(T. 19, p. 460c).

<sup>03</sup>{ea1} \ 전역 \ s\_kāla \ p\_kāla \ 존자의 이름. \ 迦羅 此翻黑. 或云哥羅. 是尊者(X. 39, p. 435a).

<sup>04</sup>{ea3} \ 축역1 \ s\_ \ p\_belatthasīsa \ 비구의 이름. \ 若復苾芻者謂哥羅苾芻. 餘義如上(T. 23, p. 825a).<sup>25)</sup>

<sup>05</sup>{ea5} \ 전역 \ s\_kāla \ p\_kāla \ 왕자의 이름. \ 善能忍恕謂勝光王. 離邪欲心為哥羅太子(T. 23, p. 871c).

<sup>06</sup>{kc0} \ 전역 \ s\_kalā \ p\_kalā \ 숫자의 단위. \ 算數過算數分不及一. 哥羅分不及一(T. 11, p. 472a).

가라<sup>08</sup> \ 芻羅 \ {ja0} \ 전역 \ s\_kāla \ p\_kāla \ 별례의 이름. \ 依勝肱根復有二種. 一名芻羅. 二名芻羅尸羅(T. 32, p. 433c).

가라<sup>09</sup> \ 柯羅 %2/6{la0}, 1/6{db1};{ea2};{ea3};{kc0}. !%1/6.

<sup>01</sup>{db1} \ 전역 \ s\_kāla \ p\_kāla \ 야차의 이름. \ 脩部摩(梁言善地) 柯羅(梁言黑) 優波柯羅(梁言小黑) 以此大孔雀王呪(T. 19, p. 452b).

<sup>02</sup>{ea2} \ 축역1 \ s\_kātyāyāna \ p\_kaccāyana \ 성현의 이름. \ 上古有仙人名柯羅. 此云思勝(T. 34, p. 459c).

<sup>03</sup>{ea3} \ 축역3 \ s\_kātyāyāna \ p\_kaccāyana \ 비구의 이름. \ 摩訶迦梅延. 此翻為文飾. 亦肩乘. 人云字誤. 應言扇繩. 亦

25) belatthasīsa에 해당하는 범어는 관련 자료들에서 대체로 '불명(不明)'이라고 한다.

好肩. 亦名柯羅. 柯羅此翻思勝(T. 34, p. 14b).

<sup>04</sup>{kc0} \ 전역 \ s\_kalā \ p\_kalā \ 숫자의 단위. \ 乃至數分柯羅分算分譬喻分優波尼沙陀分(T. 32, p. 532a).

<sup>05</sup>{la0} \ 전역 \ s\_kara \ p\_kara \ 손[手]. \ 譬如人手名為類悉多. 亦名柯羅. 亦名波尼(T. 32, p. 387c).

<sup>06</sup>{la0} \ 축역1 \ s\_kalala \ p\_kalala \ 태내(胎內) 5위(位)의 첫 단계. \ 復次生有多種. 謂柯羅等胎位差別. 乃至出胎如受生經說(T. 32, p. 381b).

가라<sup>10</sup> \ 柯邏 \ {kb0} \ 전역 \ s\_kāla \ p\_kāla \ 시간의 분류 중 하나. \ 又佛法中多說三摩耶, 少說柯邏, 少故不應難(T. 25, p. 66a).

가라<sup>11</sup> \ 歌羅 %1/3{ea5};{kc0};{la0}.

<sup>01</sup>{ea5} \ 축역1 \ s\_saṅgāra \ p\_saṅgāra \ 바라문의 이름. \ 雨勢. 歌羅. 數瞿默. 象跡喻 聞德(T. 1, p. 648a).

<sup>02</sup>{kc0} \ 전역 \ s\_kalā \ p\_kalā \ 숫자의 단위. \ 百千萬分不及一 歌羅分不及一(T. 8, p. 756b).

<sup>03</sup>{la0} \ 축역1 \ s\_kalala \ p\_kalala \ 태내(胎內) 5위(位)의 첫 단계. \ 歌羅(亦云歌羅羅亦云迦羅羅 論曰受胎七日不淨和合時)(T. 54, p. 986a).

가라<sup>12</sup> \ 歌邏 \ {la0} \ 축역1 \ s\_kalala \ p\_kalala \ 태내(胎內) 5위(位)의 첫 단계. \ 疏歌邏者. 梵語訛也. 正云羯羅藍. 此云薄酪. 謂初託胎智(X. 9, p. 601b).

가라<sup>13</sup> \ 軻羅 \ {db1} \ 전역 \ s\_khara \ p\_khara \ 야차의 이름. \ 復有夜叉丈夫. 名阿羅婆迦, 修至滿魔, 軻羅, 諸夜叉丈夫(T. 24, p. 697b).<sup>26)</sup> 軻羅(譯曰強也)(T. 54, p. 1029c).

26) T.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가 “kharaloma”라고 한다(T. 24, p. 697b). 만약 그에 따라 원어를 표기한다면 khara-loma가 되어 축역3에 해당하는 예로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khara만을 원어로 채택한 뒤 전역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Malalasekera(1974) Vol. 1, p. 713 ; Bapat(1970) p. 90 등의 자료를 비교 검토한 후에 결정하였다.

가라<sup>14</sup> \ 迦囉 \ {jb0} \ 축역2 \ s\_kālaka \ p\_kālaka \ 나무의 이름. \ 一夜寒受苦 但愁迦囉樹 枝枯不復生(T. 23, p. 916c).

가라<sup>15</sup> \ 迦囉 \ {kb0} \ 전역 \ s\_kāla \ p\_kāla \ 시간. \ 久(指囉)時(迦囉) 新(曩縛)(T. 54, p. 1242b).

가라<sup>16</sup> \ 迦囉 %6/36{ea5}, 4/36{jb0}, 3/36{ea3};{ia0}, 2/36{db1};{ea1};{eb3};{jc0}, 1/36{c00};{db2};{dc0};{hc2} ;{ic0};{ie0};{jc0};{ka0};{kb0};{kc0};{la0};{nc0};{pe0}. !%5/36.

<sup>01</sup>{c00} \ 전역 \ s\_kāla \ p\_kāla \ 벽지불의 이름. \ 世有辟支佛, 名曰迦囉, 教化人民(T. 4, p. 158a).

<sup>02</sup>{db1} \ 전역 \ s\_kāla \ p\_kāla \ 명왕의 이름. \ 摩賀彌伽明王. 迦囉明王迦囉俱吒明王(T. 20, p. 840b).

<sup>03</sup>{db1} \ 전역 \ s\_kāla \ p\_kāla \ 신(神)의 이름. \ 有迦囉神現身語曰. 道路懸遠(X. 42, p. 36b).

<sup>04</sup>{db2} \ 전역 \ s\_kālī \ p\_kālī \ 파순의 여동생인 마녀의 이름. \ 亦為觸燒魔. 我有妹名迦囉. 汝是彼子. 汝波旬當以此知. 汝是我妹子(T. 1, p. 864c).

<sup>05</sup>{dc0} \ 전역 \ s\_kāla \ p\_kāla \ 용왕의 이름. \ 有龍王兄弟, 一名迦囉, 二名鬱迦囉(T. 3, p. 463c).

<sup>06</sup>{ea1} \ 전역 \ s\_kāla \ p\_kāla \ 존자의 이름. \ 塢波半啣迦尊者. 迦囉尊者蘇迦囉尊者(T. 20, p. 842b).

<sup>07</sup>{ea1} \ 축역1 \ s\_ \ p\_belatṭhasīsa \ 존자의 이름. \ 爾時尊者迦囉. 在中住常坐禪思惟(T. 22, p. 662c).

<sup>08</sup>{ea3} \ 축역1 \ s\_ \ p\_belatṭhasīsa \ 비구의 이름. \ 比丘名迦囉. 本是王大臣善知俗法(T. 22, p. 582c).

<sup>09</sup>{ea3} \ 축역1 \ s\_kapila \ p\_kapila \ 비구의 이름. \ 即迦囉比丘是. 汝謂何者是跋難陀比丘(T. 15, p. 795c).<sup>27)</sup>

<sup>10</sup>{ea3} \ 축역3 \ s\_dharma-kāla \ p\_dhamma-kāla \ 중국에서 활동한 역경승의 이름. 의역은 법시(法時). \ 迦囉既至大行佛法. 諸僧請出毘尼(T. 49, p. 56b).

27) T.의 해당 각주에서 '迦囉=迦毘囉'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라 원어를 추정하였다(T. 15, p. 795c).

- <sup>11</sup>{ea5} \ 전역 \ s\_kāla \ p\_kāla \ 녹자 장자의 아이의 이름. \ 爾時有鹿子長者兒. 名曰迦羅. 聰智利根(T. 23, p. 18a).
- <sup>12</sup>{ea5} \ 전역 \ s\_kāla \ p\_kāla \ 바라문의 이름. \ 時香山有梵志名曰迦羅. 得備四禪(T. 14, p. 967a).
- <sup>13</sup>{ea5} \ 전역 \ s\_kāla \ p\_kāla \ 빔비사라 왕의 조카의 이름. \ 爾時瓶沙王姊子名曰迦羅. 為諸沙門施食. 欲於外道異學中出家(T. 22, p. 658b).
- <sup>14</sup>{ea5} \ 전역 \ s\_kāla \ p\_kāla \ 왕의 이름. \ 迦羅王(譯曰黑也)(T. 54, p. 1011c).
- <sup>15</sup>{ea5} \ 축역1 \ s\_kapila \ p\_kapila \ 왕사성에 살던 장자(長者)의 이름. \ 時會中有迦羅婦懷妊在座. 腹中子叉手聽經(T. 14, p. 914b).
- <sup>16</sup>{ea5} \ 축역1 \ s\_kapila \ p\_kapila \ 외도의 이름. 의역은 황두(黃頭). \ 又入大乘論. 迦羅所說. 有計一過. 作者與作一(T. 48, p. 685a).
- <sup>17</sup>{eb3} \ 축역3 \ s\_kāla-bhadra-kāpileya \ p\_kāla-bhaddā-kāpilānī \ 비구니의 이름. \ 有一迦羅比丘尼. 常出入其家以為檀越(T. 22, p. 734a).
- <sup>18</sup>{eb3} \ 축역3 \ s\_caṇḍa-kārī \ p\_caṇḍa-kālī \ 비구니의 이름. \ 爾時有比丘尼. 名曰迦羅. 本是外道. 喜鬪諍相言(T. 23, p. 311a).
- <sup>19</sup>{hc2} \ 전역 \ s\_kāla \ p\_kāla \ 수인(手印)의 이름. \ 雖移入左亦勿離同類指及本觀之內. 乃結迦羅印. 誦迦樓羅印心密言(T. 21, p. 333a).
- <sup>20</sup>{ia0} \ 축역1 \ s\_kālaka \ p\_kālaka \ 동산의 이름. \ 爾時馬師弗那跋比丘. 遊那竭提國迦羅園(T. 24, p. 873c).
- <sup>21</sup>{ia0} \ 축역1 \ s\_kaśmīra \ p\_kasmīra \ 나라의 이름. \ 入山至迦羅國. 此迦彌羅. 亦是北天數(T. 51, p. 976c).
- <sup>22</sup>{ia0} \ 축역3 \ s\_kapila-vastu \ p\_kapila-vatthu \ 성(城)의 이름. \ 在迦羅城尼俱律那僧伽藍所. 與諸比丘并諸菩薩無數眾會(T. 21, p. 468c).
- <sup>23</sup>{ic0} \ 축역1 \ s\_ \ p\_aggāḷava \ 탑원(塔院)의 이름. \ 爾時世尊於晨朝時. 詣迦羅道場敷座而坐(T. 3, p. 540a).
- <sup>24</sup>{ie0} \ 축역1 \ s\_gargarā \ p\_gaggarā \ campā국에 있던

- 연못의 이름. \ 爾時佛在瞻婆國, 於迦羅池邊, 為瞻婆人說法 (T. 24, p. 697c).
- <sup>25</sup>{jb0} \ 축역1 \ s\_hālahala \ p\_hālahala \ 독초(毒草)의 이름. \ 鬱闍尼國土. 有毒草名迦羅. 是名生合者. 如獵師合藥若根若莖(T. 22, p. 377b).
- <sup>26</sup>{jb0} \ 축역1 \ s\_tagara \ p\_tagara \ 향나무의 일종. \ 猶若瞿曇. 諸有根香迦羅為最上(T. 1, p. 876b).
- <sup>27</sup>{jb0} \ 축역2 \ s\_kālaka \ p\_kālaka \ 나무의 이름. 독성이 강한 열매의 이름. \ 若用三教方便觀法則節級遞判迦羅鎮頭 (T. 33, p. 942c). 如彼諸人食迦羅果已而便命終. 復次善男子(T. 12, p. 401b).
- <sup>28</sup>{jb0} \ 축역3 \ s\_kāla-anusārya \ p\_kāla-anusārita \ 침향(沈香), 흑견실향(黑堅實香). \ 迦羅香(譯曰黑花)(T. 54, p. 1049b).
- <sup>29</sup>{jc0} \ 축역2 \ s\_kanaka \ p\_kanaka \ 황금(黃金), 금괴(金塊). \ 或以車璩. 或以迦羅種種大寶(T. 17, p. 120a).
- <sup>30</sup>{jc0} \ 전역 \ s\_kṣura \ p\_khura \ 돌, 지석(砥石). \ 廬中有兩石. 縱廣各四千里. 一者名迦羅. 二者名迦羅尸羅(T. 1, p. 292c).
- <sup>31</sup>{ka0} \ 전역 \ s\_kāla \ p\_kāla \ 검은색. \ 迦茶. 或迦羅. 此云黑色(T. 54, p. 1109c).
- <sup>32</sup>{kb0} \ 전역 \ s\_kāla \ p\_kāla \ 시간의 단위. \ 一千六百剎那名一迦羅. 六十迦羅名摸呼律多(T. 13, p. 276a).
- <sup>33</sup>{kc0} \ 전역 \ s\_kalā \ p\_kalā \ 숫자의 단위. \ 百千俱胝那由他分, 迦羅分, 算分(T. 10, p. 845a).
- <sup>34</sup>{la0} \ 축역1 \ s\_kalala \ p\_kalala \ 태내(胎內) 5위(位)의 첫 단계. \ 因善自性成 變異得三有 已見依內具 依細迦羅等 (T. 54, p. 1255b).
- <sup>35</sup>{nc0} \ 전역 \ s\_kala \ p\_kala \ 좋은 소리, 음조(音調). \ 迦毘伽鳥者具云迦羅頻伽. 此云美音言鳥. 謂迦羅云美音. 頻伽云語言(T. 35, p. 488c).
- <sup>36</sup>{pe0} \ 전역 \ s\_kāla \ p\_kāla \ 발우의 이름. \ 佛言. 聽持迦羅鉢 舍羅鉢. 時有比丘入僧中食無鉢(T. 22, p. 945a).

가라<sup>17</sup> \ 迦螺 \ {ea3} \ 축역1 \ s\_mahā-raṣita \ p\_mahā-rakkhita \ 비구의 이름. \ 迦螺(勒和反人名也律文作螺悅專反爾雅 螺覆[虫\*翳]虫名也螺非此用)(T. 54, p. 738c).<sup>28)</sup>

가라<sup>18</sup> \ 迦羅 %1/2{la0};{nc0}.

<sup>01</sup>{la0} \ 축역1 \ s\_kalala \ p\_kalala \ 임신 후 태아의 상태. 태내(胎內) 5위(位)의 첫 단계. \ 揭邏藍或曰迦邏 皆一語耳 此即說人初受胎七日之名(T. 54, p. 783c).

<sup>02</sup>{nc0} \ 전역 \ s\_kara \ p\_kara \ 동작의 주체. 행위자(行爲者). \ 名普光明息煩惱. 迦羅. 秦言作者. 小品. 迦字門入諸法作者不可得故(T. 54, p. 1134c).<sup>29)</sup>

위와 같이 분석 조사한 결과, 우리말 ‘가라’에 해당하는 한자 음역어는 총 18종에 이르며, 모두 76종의 용례들이 상이하게 열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하게 검색한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예컨대 “迦羅”의 경우에 CETC.에서 단순 검색을 지시한다면 무려 4,193회가 검출된다. 물론 그 모든 경우가 음역어 ‘가라’에 해

28) 한글대장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가라(迦螺) : 뒷글자는 룩(勒)과 화(和)의 반절이다. 사람 이름이다. 율문에는 연(螺)이라 썼는데 열(悅)과 전(專)의 반절이다. 『이아』에서는 “연(螺)은 복도(蝮蝮)이다”라고 하였으니, 벌레의 이름으로 연(螺)은 여기서의 쓰임이 아니다.” 여기에 더하여 각주에서는 “원문의 복(覆)은 복(蝮)의 오자이다. 『이아』 「석충(釋蟲)」에 보인다.”라고 교정하고 있다. 박원자 역(2000), p. 194. 그런데 한글대장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복도의 “도”는 실제로 그 저본이라고 밝히고 있는 고려대장경뿐만 아니라,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에서는 ‘도(蝮)’ 자가 아니라 “국([虫\*翳])” 자로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검색하면, “楊子云. 蝮其肆矣. 蝮. 蝮(上音陶. 下音延)也.”(X. 21, p. 727b), “蝗子毒蟲名 爾雅云蝮蝮蝮 注云蝗子未有翅.”(X. 28, p. 488c)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로써 도(蝮)라고 쓴 연유가 짐작되기도 한다. 그러나 도(蝮) 자와 국([虫\*翳]) 자는 엄연히 다른 글자이므로 한글대장경의 오기로 판단된다.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2008) Vol. 12, p. 128, 129.

29) 원어 kara는 kara라고도 할 수 있다.

당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4,193회를 모두 검토해 보고 나서, 추적 가능한 음역어로서의 사례를 뽑아낸다. 그런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원어가 있거나 유사한 사례의 원전이 있는 예문을 추려내고서, 원어를 정리해 본다. 그리고 나서야 대표적인 예만을 표본화하여 정리한 용례가 총 36종이라는 것이다. 물론 경문의 표기 조건이 달라서 4,193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는 음역어가 분명하지만 도저히 원어를 추적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그 원어가 변연히 추정되거나 시간이 허락한다면 밝혀내고야 말 여지가 없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적확성을 담보할 수 없거나 명료하지 않은 사례는 일단 제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sup>30)</sup> 그리고 이 원칙으로 인하여 18종의 음역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가라’가 있지만 여기에 열거하지 못하였다.

또한 분명히 음역어 ‘가라’에 해당하지만 분류항의 기호 {nb0}에 해당하는 “문자 관련 용어, 언어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논문의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단어의 의미 분석과 무관하기 때문이다.<sup>31)</sup>

30) 그 중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芻闍(無粉反) 譚羅(古何反) 曝(蒲木反)(T. 54, p. 554a)”에서 “譚羅”는 야차의 이름을 음역한 단어의 일부만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문헌에서 밝히고 있듯이 “『공작왕신주경(孔雀王神呪經)』 상권”에서 추출한 단어라면 앞뒤 단어의 맥락으로 보건대 “叔譚羅木珂夜叉” 또는 “矜譚羅夜叉”(T. 19, p. 451b), 둘 중 하나의 단어 또는 두 단어에 공통하는 “譚羅”를 가리킨다는 추정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원어는 슈클라무카(suklamukha) 또는 킹카라(kimkara)로서 그 축약의 형태라거나, 두 원어에 밑줄을 그은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31) 범어 “kra”에 해당하는 음역으로 쓰이는 “迦邏, 迦羅, 柯羅” 등이 그에 해당한다.(T. 36, p. 436a).



### Ⅲ. 음역어 가라의 난맥상

#### 1. 증첩적 다의성

가라에 대한 조사 내용에서 보듯이, 각각의 한역 단어에 따라 다양한 원어들이 해당 한역어(漢譯語)로서 대응 번역되었는데, 우리말로로는 모두 “가라”라는 단어 하나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원전의 원어를 토대로 하여 한역된 경전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생기는 문제의 특성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점이기도 하다. 더구나 원어 자료에서 제1차로 한역(漢譯)할 때에는 결코 동음도 아니고, 다의어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조차도 우리말로 독음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동음이의어가 되거나 다의어로 포섭되고 만다는 점이 난맥상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다. 예컨대 가라에 해당하는 총 18종의 음역어 중에서도 “가라<sup>16</sup> \ 迦羅”의 경우에는 무려 36종의 음역 용례가 한 단어의 이의어로 추출되었다는 점이 매우 두드러진다. 이처럼 “가라<sup>16</sup> \ 迦羅”의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은 이유로서는 특히 迦 자가 범어의 ‘ka 또는 ga’ 음의 차자(借字)로서 채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총 18종 가라의 음역 용례를 모두 합한 76종 가운데 迦 자가 사용된 경우는 무려 41종에 이르고 있다.

## 2. 의미 체계의 다양성

가라의 음역 용례에 따른 의미 체계의 분류는 별첨 자료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수년간에 걸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취합된 자료들과 대정신수대장경의 색인 자료 등을 참조하여 정리한 독자적인 규정이다. 이에 따라 가라에 대한 76종의 음역 용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회수	분류 기호	총수
1	{a00}, {c00}, {da1}, {db2}, {ea2}, {hc2}, {id0}, {ja0}, {ka0}, {lb0}, {pe0}.	11
2	{eb3}, {ic0}, {ie0}, {jc0}, {nc0}.	10
3	{dc0}, {ea1}.	6
4	{kb0}, {kc0}.	8
6	{jb0}, {la0}.	12
7	{db1}, {ea3}, {ia0}.	21
8	{ea5}.	8
	총 26종의 의미 분류	76

이상, 총 26종의 의미 분류는 {a00}, {c00}, {da1}, {db1}, {db2}, {dc0}, {ea1}, {ea2}, {ea3}, {ea5}, {eb3}, {hc2}, {ia0}, {ic0}, {id0}, {ie0}, {ja0}, {jb0}, {jc0}, {ka0}, {kb0}, {kc0}, {la0}, {lb0}, {nc0}, {pe0} 등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의미는 총 8회에 달하는 ‘{ea5} 일반 남자’의 분류에 속하는 경우이며, 그 다음으로 각 7회에 해당하는 ‘{db1} 잡신, 귀신, {ea3} 비구, {ia0} 일반 거처’ 등의 분류에 해당하는 용례들이다.

7, 8회씩 등장하는 분류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가라의 음역어는 1, 2회만 나오는 범주가 21회에 달하고, 총 26종의 분류 범주에 해당하는 결과로 미루어 보건대, 단일한 음역어 ‘가

라'의 의미 체계는 지나치게 중층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점으로 인해서 음역어로서의 '가라'는 언어학적으로 명료한 지시 대상을 갖는 말이라기보다는 다수의 동음이의를 내포하는 애매성을 수반하는 단어가 되고 말았다.

한역어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우리말로서의 가라에 대한 원어의 의미 체계만을 헤아린다면 총 60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그에 따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s\_ \ p\_aggālava \ 탑원(塔院)의 이름. \ 伽羅, 迦羅.
- 2) s\_caṇḍa-kārī \ p\_caṇḍa-kālī \ 비구니의 이름. \ 迦羅.
- 3) s\_dharma-kāla \ p\_dhamma-kāla \ 비구의 이름. \ 迦羅.
- 4) s\_gargarā \ p\_gaggara \ campā국에 있던 연못의 이름. \ 迦羅.
- 5) s\_grha \ p\_gaha \ 집, 마을, 성(城). \ 伽羅.
- 6) s\_kajaṅgala \ p\_kajaṅgala \ 나라의 이름. \ 伽羅.
- 7) s\_kala \ p\_kala \ 좋은 소리, 음조(音調). \ 迦羅.
- 8) s\_kalā \ p\_kalā \ 숫자의 단위. \ 哥羅, 柯羅, 歌羅, 迦羅.
- 9) s\_kāla-anusārya \ p\_kāla-anusārita \ 침향(沈香), 흑견실향(黑堅實香). \ 迦羅.
- 10) s\_kāla-bhadra-kāpileya \ p\_kāla-bhaddā-kāpilānī \ 비구니의 이름. \ 迦羅.
- 11) s\_kalala \ p\_kalala \ 태내(胎內) 5위(位)의 첫 단계. \ 柯羅, 歌羅, 歌邏, 迦羅, 迦邏.
- 12) s\_kālī \ p\_kālī \ 파순의 여동생인 마녀의 이름. \ 迦羅.
- 13) s\_kanaka \ p\_kanaka \ 황금(黃金), 금괴(金塊). \ 迦羅.
- 14) s\_kapila-vastu \ p\_kapila-vatthu \ 성(城)의 이름. \ 迦羅.
- 15) s\_kara \ p\_kara \ 동작의 주체. 행위자(行爲者). \ 迦邏.
- 16) s\_kara \ p\_kara \ 손[手]. \ 柯羅.
- 17) s\_kātyāyāna \ p\_kaccāyana \ 선인(仙人)의 이름. \ 柯羅.
- 18) s\_kaśmīra \ p\_kasmīra \ 나라의 이름. \ 迦羅.
- 19) s\_khadiraka \ p\_khadiraka \ 산의 이름. \ 佉羅.
- 20) s\_khara \ p\_khara \ 야차의 이름. \ 伽羅, 軻羅.
- 21) s\_kṣura \ p\_khura \ 돌, 지석(砥石). \ 迦羅.
- 22) s\_mahā-kātyāyāna \ p\_mahā-kaccāyana \ 비구의 이름. \ 柯羅.

- 23) s\_mahā-raṣita \ p\_mahā-rakkhita \ 비구의 이름. \ 迦螺.  
 24) s\_nagara \ p\_nagara \ 성(城). \ 伽羅.  
 25) s\_pudgala \ p\_puggala \ 사람의 몸이나 자아. \ 伽羅.  
 26) s\_saṅgārava \ p\_saṅgārava \ 바라문의 이름. \ 歌羅.  
 27) s\_tagara \ p\_tagara \ 향나무의 일종. \ 伽羅, 迦羅.  
 28) s\_tukhāra \ p\_tukhāra \ 나라의 이름. \ 可羅.  
 29) s\_kāla \ p\_kāla \ 검은색. \ 迦羅.  
 30) s\_kāla \ p\_kāla \ 귀신의 이름. \ 伽羅.  
 31) s\_kāla \ p\_kāla \ 녹자 장자의 아이의 이름. \ 迦羅.  
 32) s\_kāla \ p\_kāla \ 명왕의 이름. \ 迦羅.  
 33) s\_kāla \ p\_kāla \ 바라문의 이름. \ 迦羅.  
 34) s\_kāla \ p\_kāla \ 발우의 이름. \ 迦羅.  
 35) s\_kāla \ p\_kāla \ 벌레의 이름. \ 哥羅.  
 36) s\_kāla \ p\_kāla \ 벽지불의 이름. \ 迦羅.  
 37) s\_kāla \ p\_kāla \ 비구의 이름. \ 加羅.  
 38) s\_kāla \ p\_kāla \ 빔비사라 왕의 조카의 이름. \ 迦羅.  
 39) s\_kāla \ p\_kāla \ 수인(手印)의 이름. \ 迦羅.  
 40) s\_kāla \ p\_kāla \ 시간. 때. \ 迦羅.  
 41) s\_kāla \ p\_kāla \ 시간의 단위 또는 분류. \ 伽羅, 柯邏, 迦羅.  
 42) s\_kāla \ p\_kāla \ 신(神)의 이름. \ 迦羅.  
 43) s\_kāla \ p\_kāla \ 야차의 이름. \ 哥羅, 柯羅.  
 44) s\_kāla \ p\_kāla \ 왕의 이름. \ 迦羅.  
 45) s\_kāla \ p\_kāla \ 왕자의 이름. \ 哥羅.  
 46) s\_kāla \ p\_kāla \ 용왕의 이름. \ 迦羅.  
 47) s\_kāla \ p\_kāla \ 존자의 이름. \ 哥羅, 迦羅.  
 48) s\_kāla \ p\_kāla \ 천신의 이름. \ 伽羅.  
 49) s\_ \ p\_belatṭhasīsa \ 비구의 이름. \ 哥羅, 迦羅.  
 50) s\_ \ p\_belatṭhasīsa \ 존자의 이름. \ 迦羅.  
 51) s\_hālāhala \ p\_hālāhala \ 독약의 이름. \ 伽羅.  
 52) s\_hālāhala \ p\_hālāhala \ 독초(毒草)의 이름. \ 迦羅.  
 53) s\_kālaka \ p\_kālaka \ 나무의 이름. \ 迦囉, 迦羅.  
 54) s\_kālaka \ p\_kālaka \ 동산의 이름. \ 迦羅.  
 55) s\_kālaka \ p\_kālaka \ 용왕의 이름. \ 哥羅.  
 56) s\_kapila \ p\_kapila \ 비구의 이름. \ 迦羅.

- 57) s\_kapila \ p\_kapila \ 왕사성에 살던 장자(長者)의 이름. \ 迦羅.
- 58) s\_kapila \ p\_kapila \ 외도의 이름. 의역은 황두(黃頭). \ 迦羅.
- 59) s\_sāgara \ p\_sāgara \ 바다. \ 伽囉
- 60) s\_sāgara \ p\_sāgara \ 용왕의 이름. \ 伽羅.

### 3. 축역의 유무 분석

가라에 대한 총 76종의 음역 사례에 대해서 원어의 음운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가에 따라서 전역과 축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역이란 원어를 온전히 그대로 반영한 경우인 반면에, 축역은 원어의 자모 중에서 선택적으로 일부만 반영하여 음역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축역의 정도에 따라 각각 1, 2, 3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총 76종의 가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라의 음역어			
전역	36종		
축역	40종	축역1	30종
		축역2	4종
		축역3	6종
총 76종			

이러한 통계로 볼 때, 총 76종의 음역 사례의 결과, 전역은 48%, 축역 52%로 분석된다. 축역 52%를 다시 세분해 보면, 전체 통계 중에서 축역1은 39%, 축역2는 5%, 축역3은 8%를 차지한다.

축역의 용례 중에서 가장 심한 정도로 원어가 축약된 용례는 “s\_kāla-bhadra-kāpileya \ p\_kāla-bhaddā-kāpilāni \ 가라<sup>16</sup> \ 迦羅”의 경우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가라의 음역에 국한하여 보자면, 음역어

의 특성상, 그 원어가 세 음절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축역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매우 빈발한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축역이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가라의 원어들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kāla”의 원어가 두 음절의 원어이며, 원어 그 자체의 쓰임새만으로도 다양한 의미를 지닌 말이기 때문이라고 추정 가능하다.

그 밖에 한역의 경우에 축역이 빈발하는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자 자체의 특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자는 단어(單語) 문자, 즉 표어(表語) 문자 계통에 속한다. 글자 하나로 하나의 말이나 형태소를 지시하는 특징을 지닌 문자 체계인 까닭에 아무리 복잡한 의미 체계일지라도 한자 하나로 집약시키는 전통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음역 방식을 선택하여 번역은 할지라도, 언어적 관습으로 인하여 최대한 그리고 가능한 한 줄이고 또 줄여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중국 어법에 따른 것으로서 당연하다고 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다. 그 결과 한역 불전에서 음역을 할 때 전역보다는 가능한 한 축역 방식을 더 많이 채택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sup>32)</sup>

32) 이 점과 관련하여, 낭송이나 암송과 연관을 지어 분석하는 주장이 있다. “중국어로서는 2음절 어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길어야 3, 4음절 내외이었으니 그 이상이 되면 낭송 및 암송에 불편하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축역은 중국어의 기본 음절수에 맞게 대다수가 2음절과 3음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또한 소수이기는 하나 4음절도 존재하는데 중국어의 성어(成語)가 보통 4음절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 정형화된 패턴의 음절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축역 현상은 범어에서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당시의 언어 현상과 맞물려 나타나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현우(2002) p. 201.

## 4. 원어의 분석

가라에 해당하는 원어를 분석하면, 총 33종의 원어가 총 76종의 동음이의 음역어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원어에 따라 그 사용 빈도수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전체 음역 용례 중에서 총 21종의 원어가 단 한 차례씩만 가라로 음역된 경우이고, 그 외에는 2종 이상의 서로 다른 한자로 음역되었다.

각각의 원어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원어 당 1종 음역

- s\_caṇḍa-kārī \ p\_caṇḍa-kālī : 迦羅.  
 s\_dharma-kāla \ p\_dhamma-kāla : 迦羅.  
 s\_gargarā \ p\_gaggarā : 迦羅.  
 s\_gṛha \ p\_gaha : 伽羅.  
 s\_kajaṅgala \ p\_kajaṅgala : 伽羅.  
 s\_kala \ p\_kala : 迦羅.  
 s\_kāla-anusārya \ p\_kāla-anusārita : 迦羅.  
 s\_kāla-bhadra-kāpileya \ p\_kāla-bhaddā-kāpilāni : 迦羅.  
 s\_kālī \ p\_kālī : 迦羅.  
 s\_kanaka \ p\_kanaka : 迦羅.  
 s\_kapila-vastu \ p\_kapila-vatthu : 迦羅.  
 s\_kātyāyāna \ p\_kaccāyana : 柯羅.  
 s\_kazmīra \ p\_kasmīra : 迦羅.  
 s\_khadiraka \ p\_khadiraka : 佉羅.  
 s\_kṣura \ p\_khura : 迦羅.  
 s\_mahā-kātyāyāna \ p\_mahā-kaccāyana : 柯羅.  
 s\_mahā-raṣita \ p\_mahā-rakkhita : 迦螺.

s\_nagara \ p\_nagara : 伽羅.  
s\_pudgala \ p\_puggala : 伽羅.  
s\_saṅgārava \ p\_saṅgārava : 歌羅.  
s\_tukhāra \ p\_tukhāra : 可羅.

1원어 당 2종 음역

s\_ \ p\_aggālava : 伽邏, 迦羅.  
s\_hālāhala \ p\_hālāhala : 伽羅, 迦羅.  
s\_kara \ p\_kara : 柯羅, 迦邏.  
s\_khara \ p\_khara : 伽羅, 軻羅.  
s\_sāgara \ p\_sāgara : 伽囉, 伽羅.  
s\_tagara \ p\_tagara : 伽羅, 迦羅.

1원어 당 3종 음역

s\_ \ p\_belatṭhasīsa : 哥羅, 迦羅(2종 의미).  
s\_kapila \ p\_kapila : 迦羅(3종 의미).

1원어 당 4종 음역

s\_kalā \ p\_kalā : 哥羅, 柯羅, 歌羅, 迦羅.  
s\_kālaka \ p\_kālaka : 哥羅, 迦囉, 迦羅(2종 의미).

1원어 당 5종 음역

s\_kalala \ p\_kalala : 柯羅, 歌羅, 歌邏, 迦羅, 迦邏.

1원어 당 24종 음역

s\_kāla \ p\_kāla : 加羅, 哿羅, 柯羅, 柯邏, 迦攏, 哥羅(3종 의미),  
伽羅(3종 의미), 迦羅(13종 의미).



이상에서 보듯이, kāla의 경우에 24종에 이르는 음역어와 가장 다양한 의미 체계를 보여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명 용례

- 녹자 장자의 아이의 이름 : 迦羅.
- 바라문의 이름 : 迦羅.
- 벽지불의 이름 : 迦羅.
- 비구의 이름 : 加羅.
- 빔비사라 왕의 조카의 이름 : 迦羅.
- 왕의 이름 : 迦羅.
- 왕자의 이름 : 哥羅.
- 존자의 이름 : 哥羅, 迦羅.

#### 신명(神名) 용례

- 귀신의 이름 : 伽羅.
- 명왕의 이름 : 迦羅.
- 신(神)의 이름 : 迦羅.
- 야차의 이름 : 哥羅, 柯羅.
- 용왕의 이름 : 迦羅.
- 천신의 이름 : 伽羅.

#### 일반 용례

- 시간의 단위 또는 분류. : 伽羅, 柯邏, 迦羅.
- 시간, 때 : 迦羅.
- 검은색 : 迦羅.
- 밭우의 이름 : 迦羅.
- 벌레의 이름 : 賀羅.
- 수인(手印)의 이름 : 迦羅.

이처럼 다양한 의미의 음역어는 전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원어인 'kāla'의 쓰임새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원어가 “칼라(kāla)”이기 때문에 그 음가를 전역(全譯)하여 “가라”라고 우리말 번역 용어를 채용하는 경우만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의미 체계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 IV. 결론

한역어로는 각기 다른 한자이고, 그 한자의 독음에 따라, 또는 장단음(長短音)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음역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 한역어를 우리말로 읽어내서 표기할 때, 모두 ‘가라’가 되어 우리말만을 기준으로 볼 때 동음이의어로 귀결되고 마는 경우에 어떻게 의미를 구분할 것인가?

이는 일반적으로 외래어나 번역 용어를 다룰 때 언급되는 “그대로 쓸 용어와 풀어 쓸 용어”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를 누적적으로 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직역이나 의역이나 하는 점과는 다른 측면의 문제, 즉 이중번역(二重翻譯)의 경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불전(佛典)의 경우는 단순히 한 차례의 이중번역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판본이 공존하는 누역(累譯)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한역(漢譯) 불전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해당 한자의 독음에 따라 우리말 표기만으로 ‘가라’라고 써 두거나, 때로는 괄호 속에 해당 한자를 병기해 놓기도 한다. 물론 그런 경우를 오역(誤譯)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역본 자체에 공존하는 여러 가지 이역본(異譯本)들과 그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원전들까지 번역되고 있는 현대에 이르러서, 동일한 인물이나 장소 등이 번역본마다 달리 표기되어 있다면 그 혼동은 이루 말할 수 없

을 것이다. 실제로 동음이의의 음역어의 경우에 그 난해하고 복잡한 정도는 뭐라고 표현하지도 못할 만큼 난맥상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가라’의 음역 용례를 조사해 봄으로써 극명하게 알 수 있었다. 또한, 가라의 경우처럼 동음이의의 음역 용례가 빈번한 다른 음역어로는 ‘나라, 다라, 마라, 바가, 바라, 바사, 반나, 발리, 발타, 발타라, 사라, 사리, 사타, 사파, 수라, 시라, 시파, 타라, 파나, 파라, 파리’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라, 파리, 파라 등은 가라의 예와 비견할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다양하고 중첩적인 음역 용례를 보여 주고 있다.

보편적으로 동음이의어의 기의(記意)는 그 단어의 전후 맥락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점은 불전의 번역이라 하여도 그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한 손으로 셀 정도의 동음이의어로 그치지 않고 한 단어가 수십 중, 무려 76종의 의미 영역에 대응된다면, 설령 고유명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고유의 기능이라 할 지시적 의미 구분이 유명무실해지고 말 것이다.

사실, 뜻글자인 한자어를 소리글자인 우리말로 옮길 때, 더구나 원어가 따로 있는 중역(重譯)의 경우에 원어의 음가를 되살려서 표기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대응하는 원전을 쉽게 찾을 수도 없으며, 아예 원전이 산실되고 한역본만 남아 있는 문헌의 경우에 특정한 음역어의 원어를 찾아내기란 참으로 어렵고 아예 포기해야 할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에 해당하는 음역어의 사례는 너무나 특이할 정도로 이례적인 용례들을 다각도로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만큼 또 적나라하게 음역상의 문제점들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요컨대 가라의 음역 사례를 통해서, 한역 불전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보다 적확하고 명료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면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끝으로, 동음이의 음역어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번역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동음이의어의 경우에는 음역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한자어를 병기하지도 않고 한글만 쓸 때에는 더욱더 지시하는 의미마저 혼동을 일으키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누역의 경우에는 다양한 판본들을 비교 분석한 뒤에 동일한 의미 용례일 때에는 가능한 한 동일하게 통일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동음이의 음역어의 경우에 중첩적인 의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전이라든가 한역본에는 없는 단어일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를 한정시키고 보충하는 말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축역으로 인한 동음이의어의 경우에는 그 원음을 복원시켜서 번역함으로써 의미의 혼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원전을 반영함으로써 한역 불전의 용어를 간명하게 하고 동시에 의미의 명료성을 높이는 데에도 적잖은 역할을 할 것이다.



<붙임> 의미 체계 분류

분류항의 기호

\* 원칙 : 세 글자의 조합으로 각각 대, 중, 소의 범주를 표시하며, 숫자 0은 하위 범주가 없음을 표시한다.

분류항		적용 범위	
a 교법	{a00} 교법	일반 교설 및 교리 : 경·율·논 3장의 전반에 걸친 기본 교설, 소승·대승을 막론한 교학 관련 용어.	
b 교단	{ba0} 승가	승가, 位階 관련 용어.	
	{bb0} 계율	계율의 종류, 세목, 護戒, 犯戒 관련 용어.	
c 불보살	{c00} 불보살	부처, 보살의 명칭, 덕성, 신체 등 여러 尊像 관련 용어. 스님의 존칭으로서 보살은 제외.	
d 신중 (神衆)	da 천신	{da1} 남성	힌두교의 大神 또는 주요 남성 신격.
		{da2} 여성	힌두교의 大神 또는 주요 여성 신격.
	db 잡신, 귀신	{db1} 남성	야차, 아수라, 아귀, 나찰 등 잡신 및 하위 남성 신격.
		{db2} 여성	야차, 아수라, 아귀, 나찰 등 잡신 및 하위 여성 신격.
	{dc0} 용(龍)	용 또는 용왕의 이름.	
e 인간	ea 남성	{ea1} 아라한/ 존자	부처 또는 보살로 호칭되기 전 단계의 남자 성자. 아라한을 일컫는 존자.
		{ea2} 성현	선인(仙人)이나 성인(聖人)으로 호칭되는 남성의 이름.
		{ea3} 비구	남성 출가자의 이름. 대덕, 장로, 구수(具壽), 사미 등 포함.
		{ea4} 우바새	남성 재가 신도의 이름.
		{ea5} 일반	바라문, 왕, 장자, 외도 등을 포함한 일반인 및 신화적 인물의 이름.
	eb 여성	{eb1} 아라한/ 존자	부처 또는 보살로 호칭되기 전 단계의 여자 성자. 아라한을 일컫는 존자.
{eb2}		선인(仙人)이나 성인(聖人)으로 호칭되는	

		성현	여성의 이름.
		{eb3} 비구니	여성 출가자의 이름. 장로니, 사미니 등 포함.
		{eb4} 우바이	여성 재가 신도의 이름.
		{eb5} 일반	왕비, 왕녀 등을 포함한 일반인 및 신화적 인물의 이름.
f 교파		{fa0} 불교	불교 내부의 학파 및 종파 관련 용어.
		{fb0} 외도	불교 외부의 학파 및 종파 관련 용어.
g 신행		{ga0} 신앙	특정 신앙의 행태 관련 용어.
	gb 수행	{gb1} 선관(禪觀)	선정, 삼매, 관법 등의 명상 및 수행법 관련 용어.
		{gb2} 행위(行位)	수행상의 계위, 得果 관련 용어.
h 의례		{ha0} 의례	佛事, 승가의 일반 의식 및 관련 용어.
		{hb0} 작법	호마, 관정, 주술 등 구체적 작법 관련 용어.
	hc 삼밀(三昧)	{hc1} 만다라	명상 대상으로 형상화한 그림 또는 입체 관련 용어.
		{hc2} 인계(印契)	수인(手印, 무드라)의 이름, 또는 이를 묘사하는 용어.
		{hc3} 다라니	다라니(만트라, 주문)의 이름, 또는 다라니용 전문어.
i 장소		{ia0} 일반 거쳐	국토(국가, 왕국), 도시(성, 읍, 마을), 유원지(동산, 숲) 등을 포함한 특정 지점.
		{ib0} 특수 거쳐	종교적 신화적으로 상징된 가상의 세계.
	{ic0} 사원/성소(聖所)	사원, 정사(精舍), 수행처를 포함한 신행 장소.	
	{id0} 산(山)	가상과 현실에서 산, 봉(峰) 등 산악의 고유명사.	
	{ie0} 수(水)	가상과 현실에서 강, 호수, 하천, 계곡, 바다 등의 고유명사.	
j 자연물		{ja0} 동물	곤충, 어류, 조류를 포함하여 움직이는 생물.
		{jb0} 식물	풀, 꽃, 나무 등의 식물 및 그 열매나 향(香).
		{jc0} 광물	금은, 보석 등 생활 문화에 유용한 자연 무생물.
	{jd0} 지형물	풍우, 산수, 전담, 모래, 바다, 바위, 기타 地形地物처럼 지구상의 자연 환경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물의 일반명사.	

k 과학	{ka0} 물리/화학	5大, 5唯 등의 물질, 또는 자연과학적 물리 현상. 의학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 물질.
	{kb0} 천문	일월성신(日月星辰) 등 천체 및 우주의 운행 관련 용어, 율력 등의 역산(曆算) 및 시간 관련 용어.
	{kc0} 수리	길이, 넓이, 분량 등 도량형 단위, 또는 숫자나 크기 등 산수 관련 용어.
l 의학	{la0} 신체/생리	인간과 동물의 신체적 부위, 생리 및 위생 관련 용어.
	{lb0} 의학/의술	의술 및 약학 관련 용어.
m 철학	{m00} 철학일반	형이상학, 논리, 심리, 윤리 등 관련 용어.
n 언어	{na0} 문법	문법 관련 용어.
	{nb0} 문자/언어	문자 관련 용어, 언어 구분.
	{nc0} 자구 분석	주로 사회부의 음역, 복합어 분석 제시 등, 일반 용례가 희소한 것들 중 다른 분류 선택이 애매한 용어.
o 사회	{oa0} 민족/종족	민족, 종족 관련 용어.
	{ob0} 신분/계급	카스트, 지위, 직책 등 관습적 신분 관련 용어.
	{oc0} 가족	성씨, 부모, 형제 등 혈족 관계 용어.
	{od0} 정치/경제	정치, 법제, 군사, 경제 등 관련 용어.
	{oe0} 직업	신분/계급 중 특정 직업을 지칭하는 용어.
p 생활 문화	{pa0} 음식	조미료, 음료를 포함한 음식 관련 용어.
	{pb0} 의복/옷감/신발	장신구 이외에 입거나 신는 필수 용품.
	{pc0} 장신구	목걸이, 귀고리, 팔찌, 모자 등, 몸을 치장하는 각종 용구.
	{pd0} 오락/유희	축제, 명절, 오락 등 통속적 유희 관련 용어.
	{pe0} 생활용품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타 용품.
q 예술	{qa0} 문학	운율, 구문 형식(산문, 운문), 장르 등 문학 관련 용어.
	{qb0} 음악/무용	각종 악기와 무용을 포함한 음악 관련 용어.
	{qc0} 건축	탑, 사원 건축의 전문 용어.

	qd 미술	{qd1} 도상	만다라 이외의 도상(圖像) 예술 관련 용어. 상징, 그림, 조상(造像) 등을 포함.
		{qd2} 공예	그릇, 향아리 등 도예 관련 용어.
	{qe0} 기물/용품	주로 불구(佛具)를 포함한 종교 의례의 용구나 물품.	
r 전적 (典籍)	{ra0} 불교	불교 관련 문헌 및 장절의 이름.	
	{rb0} 외도	외도 관련 문헌 및 장절의 이름, 베다의 지분.	
s 잡어 (雜語)	{s00} 잡어	이상의 분류에 배속되지 않은 기타 용어, 또는 일반 명사의 음역.	

### 참고 문헌

CETC. :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Version April 2009, 中華電子佛典協會(CBETA) ed..

T. : 『大正新脩大藏經』. 版本 기록은 CETC.에서 original 본을 기준으로 삼는다.

X. : 『卍新纂續藏經』. 版本 기록은 CETC.에서 original 본을 기준으로 삼는다.

각목 스님 역(2005). 『디가 니까야』, Vol. 1, 초판,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김월운 역(2006). 「40. 수장자경手長者經」, 『중아함경』, Vol. 1, 개정판, 서울, 동국역경원.

김주철 편(1992). 『팔만대장경 해제』, Vol. 7, 초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2008). 『漢韓大辭典』, Vol. 12, 초판,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대림스님 역(2007). 「하타까 경 1(A 8 : 23) *Hatthaka-sutta*」, 『앙굿따라 니까야』, 제5권, 초판,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 동국대학교(1963). 『고려대장경』, Vol. 17, 영인본 초판, 서울, 동국대학교.
- 동국역경원 편(1993). 「40. 수장자경(手長者經)」, 『한글대장경 중아함경』, Vol. 1, 중판, 서울, 동국역경원.
- 동국역경원(2001). 『한글대장경 목록』, 초판, 서울,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
- 박원자 역(2000). 『일체경음의(慧琳)』, Vol. 7, 초판, 서울, 동국역경원.
- 이연숙 편역(1992). 「手長者經 上」, 『새아함경 II 中阿含·1』, 초판, 서울, 인간사랑.
- 이현우(2002). 「漢譯佛經의 音譯語에 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제21호, 서울, 중국어문학 연구회.
- 전재성 역주(2008). 「8 : 23(3-3) 핫타까 알라미까의 경[*Hatthakālavakasutta*]」, 『양긱따라니까야』, Vol. 8·9, 초판, 서울, 빠알리성전협회.
- 전재성 편저(2005). 『빠알리-한글 사전』, 초판,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정승석  
2009 「삼국유사에 구사된 범어 음역의 원류」, 『인도철학』, 제26호, 서울, 인도철학회.  
2010 「초기 漢譯 불전에서 원어의 변용 사례: Bhadraka와 Ālavaka를 중심으로」, 『인도철학』, 제28호, 서울, 인도철학회.
- 高楠博士功績記念會 纂譯(1939). 『南傳大藏經 增支部 經典』, Vol. 21, 1st ed., 東京, 大藏出版株式會社.
- 佛光山宗務委員會(1984). 『佛光大藏經 阿含藏 中阿含經 1』, 초판, 대만, 불광출판사.
- 赤沼智善(あかぬま ちぜん)(1967). 『印度佛教固有名詞辭典』, 초판, 京都, 法藏館.
- 中國佛教文化研究所(1999). 『中阿含經』, 초판,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 Bapat, P. V.(1970). 『善見律毘婆沙-A Chinese version by

- Saṅghabhadra of Samantapāsādikā*, 1st ed., Poona, Bhandarkar Oriental Research Institute.
- Hardy, E. ed.(1958). *The Aṅguttara-Nikāya*, Vol. IV, 1st. ed. : 1899, rep.,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 Law, Bimala Churn(1979). *Geography Of Early Buddhism*, 1st ed. : 1932, 2nd ed., New Delhi, Oriental Books Reprint Corporation.
- Malalasekera, G. P.(1974). *Dictionary of Pali Proper Names*, Vol. 1, 1st ed.,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 Nyanatiloka trans.(1969). *Die Lehrreden des Buddha aus der Angereichten Sammlung Anguttara Nikaya*, Band 4, 1st ed., Germany, Verlag M. DuMont Schauberg.
- Sarao, K. T. S.(1990). *Urban Centres And Urbanisation As Reflected In The Pāli Vinaya And Sutta Piṭakas*, 1st. ed., Delhi, Vidyanidhi Oriental Publishers & Booksellers.
- Sarkar, Debarchana(2003). *Geography of Ancient India in Buddhist Literature*, 1st ed., Kolkata, Sanskrit Pustak Bhandar.
- Woodward, F. L.(1977). *Sārattha-Ppakāsinī Buddhagosa's Commentary On The Saṃyutta-Nikāya*, Vol. 1, 1st ed. : 1929, repr.,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Abstract

An Analysis on the Chaotic Aspect of Original  
Words and Meaning of the Transliterated Terms  
in Chinese Buddhist Texts:  
The Case of Gara Pronounced in Korean

Kim, Mi-suk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just a word of the transliterated Korean Gara.

The main contents are ‘the analysis on the problem of transliteration’ and ‘the analysis of transliterated Korean Gara on the basis of the Chinese Buddhist Tripiṭaka Collection’ and ‘the analysis on the chaotic state of the original words and meaning of the transliterated Korean Gara’.

There are too many homonyms, homophones, polysemies in the Chinese version of the Buddhist Tripiṭaka Collection. Because of this fact, an exact understanding of its meaning, in context, was difficult to determine.

What is worse, there were many mistranslations between the Chinese version of the Buddhist Tripiṭaka Collection to its Korean counterpart.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examples that demonstrate that these mistranslations occur frequently. This writer will provide several examples to support it in this paper.

This writer made an analysis of the sanskrit or pāli words of Gara in the translated Korean Buddhist Tripiṭaka

Collection which is based on the Chinese version of the Buddhist Tripiṭaka. This was a difficult process, either. Because many texts of the original Chinese Tripiṭaka were scattered and lost, it was impossible to resolve the Gara's original meaning in the Tripiṭaka from the transliterated words.

In consequence, this writer resolved the meaning of seventy-six kinds of Gara in the translated Korean Buddhist Tripiṭaka Collection. She has disclosed meanings of seventy-six examples of Gara. It was caused by homonyms, homophones and polysemies.

The seventy-six meanings of Gara belonged to thirty-three different words of sanskrit and pali. The thirty-three original words of Gara were translated in eighteen transliterated Chinese words.

In conclusion, the writer suggests four methods to disambiguate the hypernyms of Gara.

**Key Words:** transliteration, homonym, homophone, polysemy, hypernym, the Chinese version of the Buddhist Tripiṭaka

투고 일자 : 2010년 6월 30일

심사 기간 : 2010년 7월 27일~8월 9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8월 12일